

광주 사립고 또 시험지 유출 의혹 “13 문항 학원 문제지와 똑같았다”

기간제 교사 “문제은행서 출제”
학교측 고2 ‘독서’ 재시험 결정
학부모들 “모종의 거래 있었나”
광주시교육청, 진상조사 나서

광주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26개 문항 중 절반인 13개 문항이 학원 문제지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시험지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시 북구의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고교 2학년 중간고사 ‘독서’ 과목 시험지 유출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험 문제 일부가 학교 인근의 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최근 “‘독서’ 시험 문제지에 실린 총 26개 문항 중 20여 개 문항이 인근 학원에서 배포한 시험 대비 문제지와 똑같은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객관식 17개 문항 중 13개 문항이

학원에서 배포한 문제지와 완전히 똑같았고, 서술형 6개 문항도 유사한 내용으로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문제가 학원에서 준 문제지와 똑같더라”는 소문이 돌면서 문제 유출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의혹이 일자 학교는 바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해당 시험 문제 중 최소 13개 문항이 시중에 풀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점은 50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문항은 국어 교사 2명이 13개 문항씩 나눠 출제했는데, 문제가 된 13개 문항은 해당 학교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해 온 기간제 교사 A씨가 출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제 기간이 촉박해서 인터넷 사실 문제 은행 사이트에 올라온 문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했는데 같은 문항이 학원 자료에 들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에 게시된 문항을 고교 내신시험 문항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내신에 공정성 시비가 붙지 않도록 재시험을 결정했으며 학생들에게도 모두 통지했다”며 “학부모가 제기한 특정 학원과 거래 관계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당장 해당 독서 시험은 14일 다시 실시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은행에서 출제했다면 1-2문제 정도 비슷하게 출제 됐겠지만, 한 교사가 출제한 13개 문항 전체가 똑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학생-학부모들은 “학교와 학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교 측은 13일 현재까지도 시험 문항을 유출한 학원이 어디인지, 유출된 시험 문항을 접한 학생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 교사에 대한 별도의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학교 고교 2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특정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만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르다니,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고2 내신은 대학 입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속상하다”고 말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절대 인근 학원과 연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감사나 수사에서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의혹을 부정하는 상태이니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게임사 임원 겸직 한의사의 탈선

비상장 3개사 주식 불법 거래 54억 부당이득... 항소심도 징역형

불법 주식거래로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의사 겸 게임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A(54)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게임사 임원을 겸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4월 5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게임사 관련 3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내이사 등을 통해 저렴하게 매입한 뒤 비싸게 팔아 54억 18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어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주주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에게 200여 원이 넘는 비상장 주식을 매매했다.
A씨는 임원 신분으로, 한 주당 100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 100만주 중 93만여주를 카페 회원들에게 주당 2500원에 팔아 25배의 차익을 얻고, 같은 방식으로 한 주당 600원에 취득한 또 다른 주식 200만주를 주당

2000원에 74만여주를 되팔아 이득을 취했다.
제3차 배정으로 신주발행 되는 수량이 실제(536만 주)보다 많은 것처럼 홍보·모집하고,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뒤 회원들에게 다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제3차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업무를 대행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대량의 비상장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한 점, 임직원 자격으로 저렴하게 취득한 주식도 카페 회원들에게 신주 배정 가격과 동일하게 매도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영리목적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나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무겁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화원 보직 변경 대가 금품수수” 남구 위탁업체 노조위원장 수사

광주 남구의 환경미화 용역 위탁업체 노조위원장이 환경미화원들을 편한 보직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남구의 한 청소업체 노조위원장 A(47)씨가 노조원인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편한 보직인 청소차 운전직으로 보직을 변경해 주겠다고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A씨와 같은 노조 소속원들도 이들이 주장한 A씨의 혐의는 사기, 공갈, 횡령, 사기미수, 협박 등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과 같은 노조원 B씨에게 “회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서 청소차 운전직으로 보직 변경해줄 수 있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노조원 C씨도 고소장에서 A씨에게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직변경은 남구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A씨는 보직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A씨는 “일절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운전직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직원들에게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 없다”면서 “채용도 모두 공정하게 진행돼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보험금 노력 3명 살해 시도 일당 합의해서? ... 항소심서 감형 받아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녀 3명을 살해 시도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13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공범 박모(21)씨와 임모(21)씨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에서 9년으로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강모(여·21)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유씨 등 일당은 고교 동창이거나 보험회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10월 9일 밤 11시께 화순군 백아면 한 펜션으로 A(여·20)씨를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험설계사였던 박씨가 채팅 앱을 통해 A씨에 접근해 교제에 들어간 뒤 “실적이 필요하다”며 보험에 가입시켰고, 교제 50일 기념 펜션 여행을 함께 가서 공범 유씨 등 일당과 함께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흉기에 찔린 A씨가 도주에 성공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유씨 등 일당은 보험금을 노리고 20대 남녀 2명을 실족사 등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와 박씨, 임씨 모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충장로엔 추억이 흐른다...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 개막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이 13일 광주시 동구 일대에서 막을 올렸다. 복고풍 의상으로 차려입은 배우들이 충장로 5가 추억의 테마거리 내 추억의 전시관에서 개관 기념 공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기초반 / 특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6억8천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 (유흥가능, 사무실, 빠, 룸, 홀덤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 72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td> <td>광산구 수암동(울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td> </tr> <tr> <td></td> <td>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td> <td>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td> </tr> <tr> <td></td>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td> </tr> <tr> <td></td> <td>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td> </tr> <tr> <td></td> <td>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광주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암동(울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광주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암동(울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																